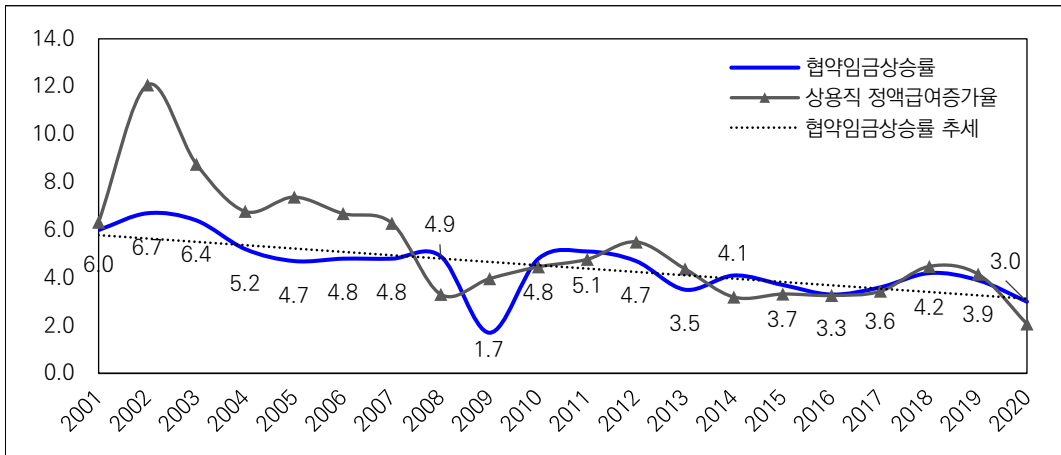


# 협약임금상승률 추이와 특성

- 2020년 협약임금상승률은 3.0%로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상승률을 보임.<sup>1)</sup>
  -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인상률 둔화의 영향으로 협약임금 증가폭이 감소하였음(전년대비 -0.9%포인트).
  - 산업별로는 교육서비스업과 건설업이 매우 저조한 상승률을 보였으며, 제조업도 평균상승률에 못 미치는 2.6%를 기록함. 특히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8%포인트), 도매 및 소매업(-1.7%포인트), 제조업(-1.2%포인트), 숙박 및 음식점업(-0.6%포인트)은 2019년 대비 협약임금 증가폭이 크게 둔화됨. 이들 산업 대부분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던 대면서비스업이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이 높음.

[그림 1] 협약임금상승률 · 상용직 정액급여증가율 추이

(단위 : %)



주: 협약임금상승률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정액급여증가율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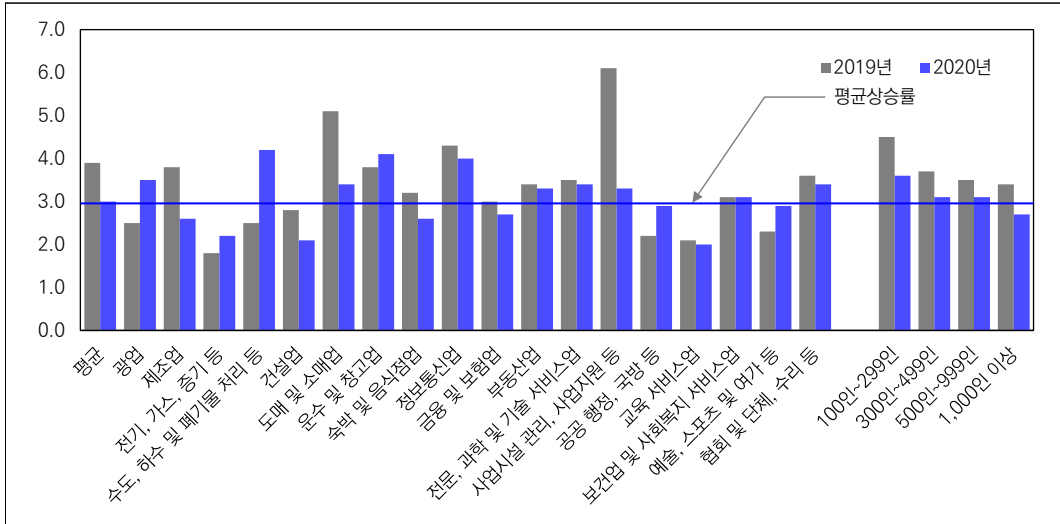
1) 고용노동부는 「임금결정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협약임금상승률과 임금결정률 현황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실시하여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부문과 임금·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실태부문 현황을 매월 발표함. 본고에서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상승률을 보고함.

-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협약임금상승률이 2.7%로 나타나 평균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추세를 이어 가고 있음.
- 1998년 조사가 시작된 협약임금상승률은 장기적으로 완만한 둔화 추세이며,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노사 임금교섭에 의한 협약임금상승률은 크게 하락함.

※ 협약임금상승률은 실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지급하기로 한 임금 기준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성과급과 같이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변동성 급여가 제외되기 때문에 상용직 근로자의 정액급여증가율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

[그림 2] 산업별, 규모별 협약임금상승률(2019년, 2020년)

(단위 : %)



주: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 대상임.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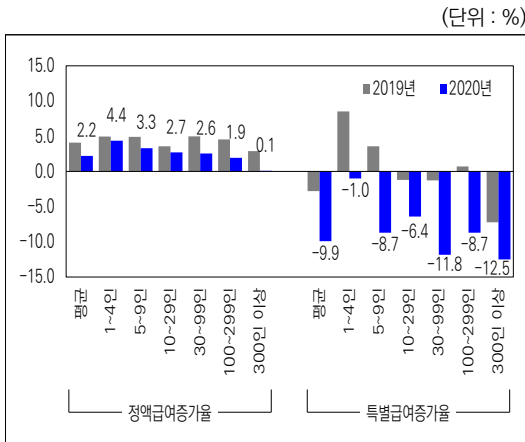
○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2020년 임금상승률을 보면,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정액급여증가폭 둔화와 특별급여감소폭 확대의 영향으로 0.4% 상승에 그침.

- 2020년 상용직 근로자의 정액급여증가율은 2.2%로 전년대비 1.9%포인트 하락하였고, 이는 조사 대상을 확대(상용근로자 5인 이상 →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한 2011년 이후 가장 저조한 상승률임. 협약임금상승률이 저조했던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정액급여증가율은 최저임금상승률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2018년과 2019년 이전보다 낮았으며, 교육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정액급여는 전년대비 감소함.2)
- 상용직 근로자의 특별급여는 기업의 경영 성과와 밀접한 변동성 급여로 2018년 제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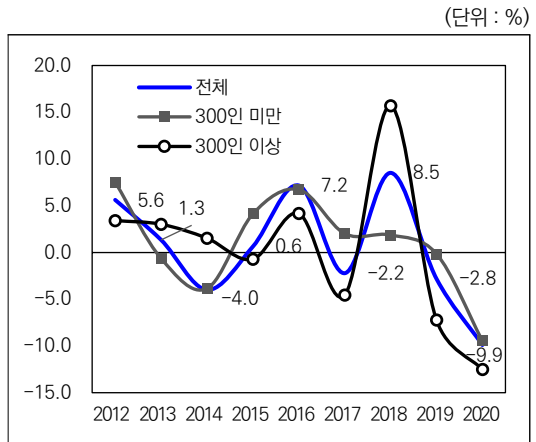
대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이후 증가분을 상쇄하고 오히려 2018년 이전보다 낮은 수준임.

- 상용근로자의 0%대 임금상승률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인한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최저임금인상률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임.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증가율 · 특별급여증가율 비교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증가율 추이



주: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대상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0년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7.8%(전년대비 1.6%포인트 상승)로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으나, 이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2020년 163만 6천 원)보다 낮은 숙박 및 음식점업(85만 원), 교육서비스업(108만 9천 원),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29만 2천 원) 부문에서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감소한 데에 기인하였음. **KLI**

김복순(동향분석실 전문위원)

2)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산업별 임금은 2020년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따르고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본 고에서 언급한 산업은 제9차·제10차 표준산업분류 기준에 큰 변화가 없어 추세를 보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